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청년1부

인간의 타락과 구원

- 1과 · 하늘로부터 흐르는 공을 누가복음 22:19~20
제비와 공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 2과 · 두 종류의 제사 창세기 4:1~7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따르는 삶
- 3과 · 두 종류의 죽음 창세기 4:8~17
가장 의로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 4과 · 여호와 앞을 떠나서 창세기 4:18~24
하나님 문을 떠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 5과 · 다룬 씨 창세기 4:25~5:3
구속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2014
March

3

총현의 만나 청년1부

인간의 타락과 구원

- 1과 · 하늘로부터 흐르는 공활 누가복음 22:19~20
자비와 공활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 2과 · 두 종류의 제사 창세기 41~7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따르는 삶
- 3과 · 두 종류의 죽음 창세기 48~17
가장 의로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 4과 · 여호와 앞을 떠나서 창세기 4:16~24
하나님 품을 떠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 5과 · 다른 씨 창세기 4:25~5:3
구속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1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하늘로부터 흐르는 공활

초점

자비와 공활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본문 누가복음 22:19~20

⁽¹⁹⁾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찬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설교'가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혀로 맛보는 말씀이요,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식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긍휼함을 맛보는 은혜의 자리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만큼 성찬은 중요합니다.

- ※ 성찬이 중요하지만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 ※ 성찬이 단순히 빵을 먹고 음료를 먹는 행위가 아닌 것을 안다면 이 성찬에 대해 우리는 심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할 성찬에 오늘날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자비와 긍휼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비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긍휼의 식탁이었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눅 22:19~20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 □□□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 □□□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은총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동에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과 그리스도의 □가 십자가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월절을 지키셨지만 진정으로 성만찬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킨다고 해도 주님의 식탁에 진실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느끼십니까?

※ 지금 여러분은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 진정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헌신

※ 그리스도의 공훈과 자비를 경험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인 물이 썩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훈과 자비가 흘러 들어왔다면 다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영적인 무기력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 7:21 나더러 □□ □□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구주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오늘날 신앙을 점검하면서 자신이 영적인 무기력함이나 나태함에 빠져 있지 않은지 나누어 보십시오.

>>> 처방전

이번 성찬의 식탁에서 다른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헌신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로부터 공활히 여감을 받고, 그분의 공활을 전하는 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부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활히 여감을 받고 그분의 공활을 전함으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요구로 남겨져 있습니다.

1. 해산의 수고를 하라

갈 4:19 _____

2. 기도하라

골 1:3 _____

3. 어려움과 고난을 기뻐하라

골 1:24 _____

주님께서는 '죽음'을 향한 고난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주님 자신의 몸이라고 하였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주님께서 흘리시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했지만 이제 그런 제사는 필요 없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제물 되신 주님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 모두가 살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가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자비와 긍휼을 은혜로 경험하며, 그 자비와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 이번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기도

- ① 이번 성찬을 통해 주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하소서.
- ② 자비와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냄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 ③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하게 하소서.

2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두 종류의 제사

초 점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본 문 창세기 4:1~7

- 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 ②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 ③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 ④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 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 ⑥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 ⑦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창조물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창 4:1~2 _____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께 각각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 인	아 벨
직업		
대상		
제물		
제사의결과		

가인과 그의 제사

가인의 출생은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의 대가로 고통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일을 위해 농사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 4:2 가인은 □□ 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손으로 경작한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힘든 수고, 그리고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 첫 번째의 것? VS 어떤 것?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바쳤지만 '첫 번째의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배가 없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딤후 3:5 _____

거절된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렸던 사람 바로 가인 자체였습니다.

창 4:5 □□과 그의 □□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니라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인은 '몹시 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히 분내었고 얼굴과 안색이 침울해졌고 실망하고 낙심한 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향이고 죄의 본성입니다.

시 37:8 □□을 그치고 □□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을 만들 뿐이라

∴ 이 상황에서 가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은 자신의 믿음 없음과 거짓 된 삶의 예배에 분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

창 4:2 아벨은 _____ 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아벨 역시 가인과는 다르게 믿음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린 아벨 자체를 받으셨습니다.

창 4: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과 그의 □□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첫 어린 양으로, 최상의 것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외심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히 11:4 _____

예물 그 자체가 믿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드리는 예물은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삶을 증명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무죄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으므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 여기 가장 완벽한 제물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가 드린 제사는 가장 완벽한 제물을 드렸으므로 두 번 다시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히 7:27 _____

믿음의 기도

- ① 우리의 삶이라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 ② 예수님이 드린 완전한 제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 ③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청년1부가 되게 하소서.

3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두 종류의 죽음

초 점

가장 의로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본 문 창세기 4:8~17

⁸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⁹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¹⁰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¹¹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¹²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¹³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¹⁴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밟을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¹⁵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¹⁶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¹⁷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그것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가인은 분을 내었고 그 분노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동생과 하나님 모두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상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마침내 아우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요일 3:12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이라

※ 가인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계획적인 살인과 거짓

‘지상 최초의 살인 사건’, 이것은 계획적이었으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범죄가 잉태되기까지 죄가 어떤 식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창 4:8 _____

가인은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합니다. 인적이 뜸한 곳, 들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그의 어리석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그곳에서 아벨을 처죽였습니다. 그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살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과 가인의 대답

창 4:9 _____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지금 일어난 모든 일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가인은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죄를 범한 후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태도를 취합니다.

"I don't know," he replied.

가인은 동생 아벨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 뒤에 숨으면 자신의 수치와 죄가 숨겨질 줄 알았던 것처럼 그의 대답은 "모릅니다"였습니다.

※ 그렇다면 죄 속에 파묻혀 사는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해야 할 바당한 대답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과 가인에 대한 심판

창 4:10

살해당한 아벨의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는 죄에 대한 정역이 실행되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호소를 들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인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분노는 하나님의 자비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시 107:17~18

※ 하나님이 용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정말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가인에게 내려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창 4:12 _____

가인, 악한 자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위로

가인은 죄의 대가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는 무자비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 창세기 4:14 속에서 가인이 느꼈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인간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창 4:15 _____

반복된 하나님의 죽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자라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멀어지고 영의 생각, 즉 예수님의 생각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롬 8:5~8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이요 영의 생각은 과 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이 범한 가장 심각한 살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인간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아벨의 죽음이 땅의 호소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실행되게 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실천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실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 ① 청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소서.
- ②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 ③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4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초점

하나님 품을 떠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본문 창세기 4:16~24

⁽¹⁶⁾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¹⁷⁾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¹⁸⁾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아엘을 낳고 므후아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¹⁹⁾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싹라였더라 ⁽²⁰⁾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²¹⁾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²²⁾싹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²³⁾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싹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²⁴⁾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성경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이미 그의 마음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에 대들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장소적으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창 4:16

∴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 세상적이며 경건치 않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렘 15:6

오늘날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떠난 삶입니까? 떠나가는 중입니까? 떠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 이후로, 이랏, 므후아엘, 므드사엘, 그리고 라멕에 이르는 지속적인 생육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 제도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창 2:24 이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이 ☐몸을 이룰지
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낸 하나님 없는 문명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다처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사람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도구로 일부다처제를 막아놓고 있지만 속의 내용을 보면 정신적인 일부다처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 이렇게 성적인 타락과 왜곡이 일어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불륜과 로맨스 사이에서 진리를 견고히 잡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음란한 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많은 문화를 건설하며 번성했습니다.

창 4:20~22 _____

이런 일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업, 물질, 문화, 예술, 도구나 기술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은 계속해서 명예와 부와 권세와 문화적인 업적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형성된 사회 건설을 꾀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회이며 이 세상과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엡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만들어낸 문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명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

창 4:23

하나님에게서 몸과 마음이 멀어진 가인과 동일하게 그의 후손인 라멕에 의해 심각한 문명이 사회에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분노하고 오직 인생만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라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죽였습니다. 살인에 대한, 그리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무뎌져 있는 모습을 그의 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 4:24

이것은 라멕 자신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이 있어야 할 피조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잠 3:7

라멕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신의 보호를 위한 보복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칠십칠 배만큼의 끔찍하고 잔인한 보복을 할 것이니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잠 20:22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가는 사회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다스림이 아닌, 스스로 지배자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다스리려는 악한 문명이었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셔야 했던 이유는 가인과는 정반대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뜻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눅 22:42 _____

오늘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 ① 주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소서.
- ② 하나님 앞을 떠나 사는 인생에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라멕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5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다른 씨

초 점

구속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본 문 창세기 4:25~5:3

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27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8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29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 부부를 죄로 몰고간 사탄은 그 결과로 저주를 받습니다.

창 3:14~15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탄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과 자신을 향한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의 말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심으로 창세기 3:15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메시야는 이 땅의 구속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구속에 대한 믿음을 막으려는 사탄의 방해는 무엇입니까?

아벨을 대신함

창 4: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 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 대신에 다른 □ 를 주셨다 함이며

※ '셋'은 누구입니까?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경건한 자손을 이어갈 또 하나의 아들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릴 다른 씨를 허락하셨습니다.

※ "아벨 대신에 다른 씨(child)를 주셨다"는 하와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가인이 죄 없는 아벨을 죽였듯이 유대인들은 가인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child)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만드셨듯 예수 그리스도(child)를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름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출생한 '셋'은 '예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탄생과 그 후손들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가인의 살인과 형벌이라는 어두운 그늘이 걷어지고 새로운 믿음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창 4: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의 을 불렀더라

※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의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셋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나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계보

하나님은 아벨 대신 다른 씨인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계보는 메시아의 탄생을 위한 구속사적 계보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없는 역사를 이루어간 반면, 셋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시며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창 5:1 이것은 아담의 □□를 작은 책이니라

이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셋을 거쳐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낳았으며'와 '죽었더라'입니다. 아담의 혈통적 계보는 낳고 죽는 것을 반복할 따름입니다.

롬 5:14 _____

창 5:1~2 _____

∴ 아담의 혈통적 계보를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인간 창조를 상기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인간은 반복되는 탄생과 죽음에 놓인 유한한 존재로 전락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경건한 혈통의 첫 번째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같은 자손을 낳아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명하는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창 5: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이 경건한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의 제사를 드릴 셋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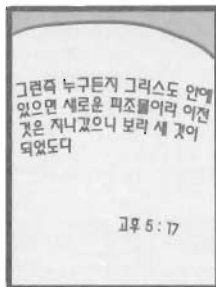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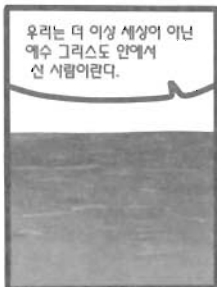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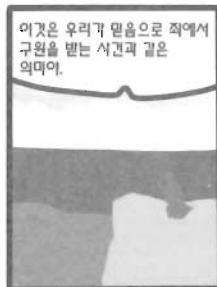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행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입증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셋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 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② 청년1부가 영적인 셋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 ③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세3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고후 5: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팀 조 이름:

충현의 만나 2014년 3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이경민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물]